

아즈마산의 화산활동

아즈마 화산군은 거듭된 분화로 인해 30 만~6,000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. 일부 산 정상에서는 지금도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잇사이쿄산(해발 1,949m)은 도호쿠 지방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으로, 이 산에 여러 곳 존재하는 분기시대 중 하나인 오아나 화구에서는 지금도 계속 화산가스가 분출되고 있습니다. 잇사이쿄산은 엄중히 감시되고 있으며, 화산학자들은 분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
잇사이쿄산에서 1893 년에 발생한 큰 분화에서는 부근을 조사 중이던 기사 2 명이 사망했습니다.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상공 2,000m 까지 치솟았고, 용암 파편과 재가 쓰바메사와의 여러 화구에서 대량으로 분출되었습니다. 1977 년에 발생한 마지막 분화는 비교적 작은 규모였지만, 그래도 화산재가 4km 나 떨어진 곳까지 비산되었습니다.

아즈마 화산대는 상시 화산활동이 감시되고 있는 일본의 50 개 구역 중 하나입니다. 기상청에서는 5 단계의 분화 경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활화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. 레벨 1 이 최하, 레벨 5 가 최고 경계 레벨입니다. 조도다이아 지역은 보통 레벨 1(활동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)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단, 잇사이쿄산 주변의 경계 레벨이 2 이상이 되면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조도다이아 지역 일대는 봉쇄됩니다.

방문하실 때는 기상청 홈페이지(https://www.jma.go.jp/en/volcano/map_1.html)에서 분화 경계 레벨을 확인하도록 합니다.